

광주시·교육청, 안전한 급식·맞춤형 인재 육성 1779억 투입

2026 교육협력사업 10개 과제 시비 784억·교육청 866억 분담 '무상급식-친환경-Non-GMO' 3중 급식 안전망 구축 신입생 입학준비금 94억 배정 ... 과학영재·직업계고 대폭 지원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올해 1779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급식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입학준비금 지원과 과학·직업 교육 투자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교육지원정책과 교육협력사업은 총 10개 과제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779억 2600만 원이다. 재원 분담은 광주시가 783억 9400만 원, 시교육청이 866억 12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5개 자치구가 118억 1600만 원, 국비 등 기타 재원이 11억 400만 원 투입되는 구조다. 올해 교육협력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급식의 질적 고도화'다. 전체 사업비의 90.3%에 달하는 1606억 8400만 원이 학교 급식 관련 3개 사업에 집중 배정됐다. 이는 단순한 무상급식을 넘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는 1270억 800만 원이 투입된다. 광주시가 601억 5900만 원(47.4%), 교육청이 593억 7700만 원(46.7%), 5개 자치구가 74억 7200만 원(5.9%)을 분담해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559개교 17만 3126명의 학생에게 질 높은 점심을 제공한다. 여기에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지원도 병행된다.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03억 9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사용을 위한 'Non-GMO 식품 학교급식 지원'에도 33억 6700만 원을 투입해 된장·고추장 등 6개 필수 품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광주시는 '무상급식-친환

경-Non-GMO'로 이어지는 3중 급식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바우처 지원도 이어진다.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는 94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신입생 3만 7466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교육청(55%)이 과반을 부담하고 광주시(25%)와 5개 자치구(20%)가 힘을 보탠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투입해 122개 사립유치원의 학급 운영비와 전담사 인건비 일부를 보조한다. 공·사립 유치원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외 계층 없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시비 20%·교육비 80%)을 투입해 장애 성인의 학습권 보장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적용됐다. 이공계 인재의 산실인 '광주과학기술원' 운영 지원'에 3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첨단 기자재 확충과 R&E(연구·교육) 활동을 돕는다. 예산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정확히 절반씩(각 18억 2500만 원) 부담한다. 이밖에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20억 4500만 원을 투입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실무를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5억 5700만 원을 지원해 고졸 취업 활성화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교육 지원'에도 1억 2200만 원이 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통령과 부총리 '웃음꽃 대화'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올림픽 등 국제행사 국민 접근성 보장 제도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과 관련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결과물을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 동계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며 "스포츠 외교 측면에서도 값진 성과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또 "팀 코리아 정신"으로 국민에게 뜻깊은 겨울을 안겨준 선수단과 지원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해 "이런 흐름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

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숙박·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며 "과도한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택과 집중' 기로에 선 광주 지역축제

2026년 축제육성위원회 개최 자치구 대표 5개 축제 심의 올 시비 지원 12억 '긴축' 불가피 '충장축제' 등 콘텐츠 평가 주력

'노벨 도시' 탈피를 선언하며 '축제의 도시' 브랜딩에 나선 광주시가 올해 지역 축제 육성 가리기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열린 지역 축제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로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을 비롯해 학계, 관광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올해 축제 지원 심의의 가장 큰 변수는 '줄어드는 예산'이다. 광주시가 책정한 2026년 지역축제 육성 지원 예산(시비)은 총 1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 18억 5000만 원(기존 5개 축제 13억 8000만 원+버스킹월드컵 4억 7000만 원)과 비교해 6억 5000만 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5개 축제에 지원된 시비 총액(13억 8000만 원)보다 올해 전체 예산(12억원)이 적어, 각 축제에 돌아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재정 지원을 신청한 축제에는 총 57개다. 동구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서구 '광주서창역새축제', 남구 '굿모닝! 양림', 남구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심의 대에 오른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금(시비 9억 5000만 원)을 받은 '충장축제'는 퍼레이드와 아시아컬처쇼 등 대형 콘텐츠를 앞세워 올해도 대표 축제 수성에 나선다. 영산강변 힐링테마길을 내세운 '서창역새축제'(지난해 2억 7000만 원)와 뮤지션 공연을 특화한 '광산뮤직ON페스티벌'(지난해 8000만 원)도 지원금 확보를 노린다. 남구는 인문학 콘서트를 표방한 '굿모닝! 양림'과 겨울 시즌 특화 축제인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등 2개 축제를 신청했다. 지난해 두 축제는 각각 4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 평가는 간간하게 진행된다. 지난해 진행된 '축제평가단 현장평가' 점수 40%와 이날 위원회가 진행하는 '종합평가' 점수 60%를 합산해 S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광주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단순한 예산 나눠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축제의 도시 광주'라는 브랜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	-----------	-------------------------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